노인주간보호센터 돌봄 종사자의 치매지식 분석을 통한 치매서비스 개선 방안

한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부교수

Improvement of Dementia Service through an Analysis of Dementia Knowledge of Care-givers at Adult Day Service Center

Jeong-Won Han

Associaate Professor, Department of Aging and Social Work,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탈시설화와 통합돌봄의 본격적 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돌봄이 더욱 중요해졌다. 치매에 대한 관점도 기존의 의료 모델, 사회적 모델에서 인간 중심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재가이용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돌봄 종사자들의 치매지식을 분석하여 치매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곳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연한 2년 이상의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7가지 영역에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기반서비스의 중요성과 규칙적 일상 실천, 치매와 함께 동행하기 위한 치매인식 개선, 개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중심 서비스의 실천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치매지식, 치매인식, 돌봄종사자,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서비스 개선방안

Abstract As South Korea has become an aged society, the dementia rate has also been increasing. With the introduction of both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in 2017, the importance of community-based care has increased. Perspectives on dementia have also been shifting from the medical model and social model to the person-centered model. This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dementia service through analyzing the dementia knowledge of care-givers at ADS. The paper includes an FGI with the care-giver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2 years. Based on such FGI, the paper draws sub-themes from 7 areas. Among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community-based service with daily routine practice, improving awareness of dementia for co-living, and person-centered service based on individuality and diverseness.

Key Words : Dementia Knowledge, Dementia Recognition, Care-giver, Adult Day Care Center, Dementia Service Improvement

*Corresponding Author: Jeong-Won Han(jhan@cup.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1046384).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전체노인인구비율이 14% 를 넘으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앞으로도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2030년 24.3%, 2050년 37.4%로 급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세 이상 인구비율 은 2015년 5.5%에서 2030년 9.7%, 2050년 2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문제가 서서히 진행된다 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저출생과 연관되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관된 문제를 미리 유추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8 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이후 24년이 소요되었지만,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불과 9년이 소요 될 예정이다[1].

고령인구의 증가는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 유병 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4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6%로 61.2만명이었는데[2], 2020년 치매유 병률은 이보다 더 증가한 10.2%로 약 83만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3]. 20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44만 3천명이었고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조 6천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약 364만원 수준이었다 [4] 2020년 치매관리비용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65 세 이상 치매환자 1인당 연간관리비용은 2.061만원으 로 국가단위 치매관리비용은 무려 17.3조원이고 2050 년에는 88.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입원 이나 외래, 약제 처방에 소요된 총 진료비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약 2조 8천억원이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또한 2001년부터 합계출산 율 1.3 이하의 사회현상이 20년째 지속되어 온 상황에 서 실제로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 작하였고, 이는 고령화 및 치매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 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2017년 치매국가책임 제가 소개되었고, 치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매에 대한 관점은 의료적 관점에 서 통합적 관점으로의 변화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고 제 도 또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주간 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이 보

호의 대상에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living with dementia)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거 주 지역에서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인식이 무엇보 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중심기 관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사회복 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종사자의 치매에 대한 지 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치매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치매 정책

치매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은 2025년까 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국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영 국에서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을 목표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중이며 일본은 노동후생성을 중심 으로 치매예방서비스 등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5].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2016년 말 69만명의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고통 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 담,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 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장기요 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전국 350여개의 지역 노 인복지관을 통해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 터를 설치하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인지훈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 급 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환자에게 장 기요양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2021년 17개의 광 역치매센터가 있으며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 영 중이다[3].

정부의 치매정책은 이미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치매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 및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치매정책은 OECD(2014)가 제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아닌 국민(치매환자, 가 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치매발병위험 사전관리, 염려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한 치매진단 제공,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 제 공, 잘 조정되고 능동적이며 집근처에서 이용하는 돌봄 제공, 양질의 안전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를 인 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기관 확립, 원하는 곳 에서 품위있게 임종할 수 있는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 치매에 걸린 친구나 친척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기술을 통한 돌봄지원 구현 등 치매 예방에서부터 단계별로 대처해야 하는 핵심정책을 말하고 있다[2].

3. 치매에 대한 관점과 최근 연구 동향

3.1 치매 관점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며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6]. 치매는 의학적으로 명 확한 원인이 없으며 완치약이 없다. 또한 치매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다. 치매는 인구고 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 는 상황이다[7].

치매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그리고 최근의 인간중심케어 모델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적 시각이다. 의료적 시각은 질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알아 처방과 치료를 하는 것인데 모든 과정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즉, 의료적 모델에 서는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책을 결정해 서 환자에게 적용한다. 질병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 문에 환자는 질병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 불행이다. 그러 나 의사는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환자의 배경 이나 다른 욕구는 간과하고 치료에만 집중하게 된다.

의료적 모델에서 치매의 의학적 정의는 "퇴행성 뇌질 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 남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인지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8] 이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에 발 생한 각종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

활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것이 장애로 인식이 되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정한 후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질병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치매노인은 대상화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중심적이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낙인감과 수치감을 부각시킨다[9].

사회적 모델은 의료적 모델의 한계 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장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차별적 태도와 대응 자체가 장애를 만든다는 것이다. 의 료적 접근이 치매를 질병으로 규정하여 '어리석고 제정 신이 아닌 상태'로 인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한다고 본다[10]. 따 라서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모델은 의료적 모델이 제시하 지 못했던 사회 경험과 구조적 차별 문제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집중하여 역시나 치매노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인간중심케어의 입장에서는 치매노인을 인격체로 보 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회 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케어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주목받은 것은 기존 연구에서 치매노인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지만 자아가 손상되지 않은 징후가 있으며 치매노인의 자아정체성이 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해냈기 때 문이다[11].

3.2 치매 연구 동향

1990년대 이후 인간중심케어모델이 발전하게 되면 서 치매노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10,12]. 일반인 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살펴보고 치매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치매가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이 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찍부터 요청되었다. 또한 치매노인의 존엄케 어와 인격존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3,14] 이는 중 증치매환자의 완화의료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13]. 치매노인이 자립성과 인간존엄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치 매노인이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제 시되었다[15]. 가족 내 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

고 [16-18]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동기나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19] 가족 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지프로 그램의 효과성 및 돌봄경험, 부양에 대한 부담과 돌봄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20-22].

치매 돌봄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가족 내 돌봄 종사자에 관한 것들이 많으며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 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큰 틀 안에서는 재가장기요양 이용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돌봄종사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지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4. 돌봄종사자의 치매지식 FGI

4.1 연구방법

2019년 11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돌봄종 사자들의 치매인식과 치매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 소재의 2곳의 주간보호센터 돌봄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요양보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이었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근무연한 2년 이상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Table 1 참조).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미리센터를 방문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드리고 간략한 대답을 미리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Table 1. FGI Participants

Center	No	Position	Age	Duty Term
А	1	Care Worker	51	3
	2	Care Worker	58	9
	3	Care Worker	61	4
	4	Social Worker	28	2
В	1	Care Worker	48	5
	2	Care Worker	60	7
	3	Social Worker	34	2
	4	Nurse Practitioner	50	8

질문의 초안은 반구조식으로 구성하여 연구진행과정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오고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질문의 구성은 크게 치매의 정의, 특성(사례 제시), 치매에대한 인식과 태도, 어려움, 치매 가족, 개인적 개선방안 및 사회적 개선방안 등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정의 영역에서는 '치매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고, 특성 영역에서는 사례를 통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서는 '만약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떨까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고, 치매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치매에 걸려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요' 등으로 질문하였다. 가족 영역에서는 '치매 가족이 안타까울 때는 언제입니까'의 질문을 하였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이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중요)한 것과 사회가 해야 할 일 등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Table 2 참조).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FGI진행과정을 녹음, 속기한 것을 반복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을 코딩하고 유사한 단어끼리 구분하였다.

Table 2, FGI Questions

Knowledge Areas	Question	
Definition	What do you think dementia is	
Visible Symptoms/Case	Can you tell examples of dementia symptoms	
Recognition/Attitude	If I were diagnosed as dementia	
Personal Risk/Difficulties	What is most difficult thing of people with dementia	
Families	When do you feel sad for the family with dementia	
Personal Needs	What is most necessary thing for people with dementia	
Social Need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ar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4.2 분석 결과

4.2.1 정의

돌봄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정의는 의료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모두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답변에는 객관적인 관찰과 주관적인 감정이 복합되어 반영된 부분이 많았다. 주제는 기억상실, 인지 기능 저하, 가족 및 사회적지지, 끊임없는 관심, 걸리고 싶지 않은 무서운 병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나의 부분과 기억이 점차로 사라지는 불쌍한 병이라고 생각해요(A3).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가족만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병이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죽을 때까지 힘든 병.(B4).

그러나, 걸리게 된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고 최대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 또한 나타났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병인데 병원으로 가느니 최대한 집에 있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A4).

4.2.2 특성

돌봄종사자들이 관찰하는 치매의 특성과 사례는 치매의 증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치매노인을 가까이서 돌보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은 가족보다 더 많 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돌봄 종사자들이 제시하는 치매의 특성은 크게 '조용한 치매'와 '과격한 치매'로 나누어졌고, 수동적일수록 무기력함과 우울의 특성을 제시하고 과격할수록 언쟁과 다툼, 공격성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반복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 피해망상, 불리불안, 집착과 언어 능력의 상실 등을 제시하였다.

4.2.3 인식과 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표출되었지만 치매에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면 치매의 증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치매를 가까이서 지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치매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 이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말 관리 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증세도 좋아지는 것 같고 혼자 게시면서 밥도 못 챙겨먹고 그러면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A1)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병이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것 같아요(B1).

내가 걸린다면 나는 제 발로 시설에 들어갈 것 같은데 주간보 호센터가 좋은 곳이 있으면 다니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B2)

4.2.4 어려움

치매의 어려움으로는 위생이 단연 우세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인 위생이 되지 않는 것과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기저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인간관계라던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등이 오히려 소소 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위생에 대한 주제가 우세했던 것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이고 돌봄 제공자로서의 의무 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늘 쫒아 가면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문고리를 일부러 빼놓기도 하고 일보시고 처리가 안 되니까(A2)

가족들이 속옷이나 목욕 정도만 제대로 챙겨줘도 좋을 텐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B2).

목욕이 제일 힘들죠. 냄새가 나고 기저귀도 벗자고 하면 잘 안하고 화를 내고(A1).

4.2.5 가족

치매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살핌의 제공자로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거나 무관심에 대한 안타 까움 감정으로 구분되었다. 보통 생활시설로 모시지 않고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이용시설로 모시는 경우 는 가족들이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시설이용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해 다른 존칭을 사용하실 때,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B4).

가족이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포기 할 때. 부모님 케어가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모셔야할 때(A4).

치매가족이 가족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오해를 하실 때(B1).

4.2.6 개인적 개선방안

치매노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규칙 적인 생활, 안정감, 위생적인 환경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단체생활을 하는 돌봄의 장소이고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돌봄 종사자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매 끼를 제 시간에 제철 음식으로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공부도 매일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치매도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극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A4).

온화한 생활환경이 중요하고 인지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B4)

4.2.7 사회적 개선방안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세한 주제로 분석되었다.

돌봄 종사자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선입견이 변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노인 돌봄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경우, 통계에서 제시하는 치매발병률을 직접 체험하기도 한다.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4등급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5등급이 많아요(A2)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매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보다 어떻게 집에서 오래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B2)

치매어르신에 대한 이해심과 존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B1)

인권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치매어르신도 엄연히 한 사람의 인격체이므로(A4).

5. 논의 및 결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예방과 관리 방침, 체계적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기존의 의료중심적, 사회중심적 모델에서 인간중심적 케어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적 결핍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치매를 겪고 있는 한 개인이 대상화되어 버리지만 인간중심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자아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치매로 인해 일상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시설화의 비용 감소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치매돌봄정책은 탈시설화와 통합돌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살고 있는 곳에서 늙어가기(Ageing in Place)'를 구체 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재가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 점차로 중요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분석하여 치매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지역사회 내 돌봄제공의

중요성이다. 돌봄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 노력과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있다면 시설 입소 보다 재가이용시설을 다니는 것을 명백히 선호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시설 을 이용할 때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학습의 실천사항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둘째,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 내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증치매의 과격함과 배회, 자아감의 상실 등에 대한 인식만 부정적으로 팽배 해 있는 경향이 있다. 치매 양상은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기(living with dementia)'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치매인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 중심적 치매 서비스의 필요성 이다. 의료적 치료 모델, 사회적 결핍과 배제를 감안 하는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통합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존중감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치매노인의 자아정체성 또한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곳의 주간보호센터의 소수의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점과 또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정책에서 중요한 재가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을 제외하고 주간보호센터 만을 대상으로 한 점 등 연구 규모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만,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FGI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향후 치매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통합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Total Fertility Rate and Old-Age Dependency Ratio.* http://www.mohw.go.kr/eng/hs/hs0101.jsp?PAR_MENU_ID=1006&MENU_ID=100601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The Fourth Dementia Management Pl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National Dementia Center. 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21.NDC.
- [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Long-term Care Insurance Observatory. NHIS.

- [5] T. S. Yong & S. K. Yi. (2020).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Society Where Dementia Patients are Increasing?: Establishing a System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Early Dementia Patients through Linkage of S&T and Social Policy. KISTEP.
- [6] G. R. Hong, K. O. Park & E. M. Oh. (2018) Assessment and Suggestion on Strategies to Overcome Dementia and Its Tasks: Nursing Perspectiv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1), 37-63.

DOI: 10.15709/HSWR.2018.38.1.37

- [7] J. D. Kwon. (2018). Evalua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Dementia Care System in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1), 9-36.
- [8] Korean Society of Neurologists. (2022). What is Dementia. https://www.sinsamo.or.kr/disease/index.php?ca=2
- [9] J. Walmsley. (1991). Talking to the Top People: Some Issues Relating to the Citizenship of People with Learning Difficulties.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6(3), 219-231.
- [10] S. C. Chang, A. R. Yoo & M. K. Cho. (2020) Study on Improving Awareness of Dementia: Focus on Dementia and Cognitive Disorder Terminology. *Japanese Cultural Studies*, 74, 239-256.
- [11] H. S. Lee. (2019). An Analysis of the UK's Dementia Respons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9(1),* 72-107.

DOI: 10.15709/HSWR.2019.39.1.72

- [12] H. J. Choi & J. S. Kim. (2019). Dementia Policy Recogniti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 Prevention Behavior. Korean Elderly Welfare Conference Source Book. 339-344.
- [13] J. S. Chun. (2011).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Terminal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2), 176-181.
- [14] S. S. Nam. (2018) Preserving Human Dignity in Dementia Narratives. *JMBALL*, 36(3), 21-44. DOI: 10.21084/jmball.2018.08.36.3.21
- [15] E. J. Park. (2020). Interdependence and Relatedness as Personal Dignity: Focusing on Experiences of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8), 429-437. DOI: 10.5392/JKCA.2020.20.08.429

- [16] Y. R. Lee, Yang & E Kim. (2002). The Effects of Stress Management Training on the Primary Caregivers of Demented Elderly Person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5, 169-188.
- [17] M. H. Park, H. J. Kim & J. H. Kim. (2014). Support Group Participation Analysis through Dementia Family Focus Group Interview. Koarean Nursing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Source Book. 286.
- [18] H. K. Seok & J. S. Choi. (2015). Family Resilience Enhancement for Families with Elders Affected by Dementia. *Journal of Family & Family Therapy*, 23(3), 499-523.

DOI: 10.21479/kaft.2015.23.3.499

- [19] B. H. Cho & D. Y. Lee. (2016).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Dementia Patient Home Care Intention of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320-331.
- [20] S. Y. Kim & S. H. Chung. (2019). The Effects of a Support Program for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on Empowerment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103-114.
- [21] T. Y. Kil & M. J. Cho. (2020). Care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in Elderly with Dementia at Hom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7(47),* 31-58.

DOI: 10.22779/kadw.2020.47.47.31

[22] Y. J. Oh, M. H. Lee & H. S. Kim. (2020). Relationship between Caring Burden and Caring Behavior among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in Community-Dwelling: Mediating Effects of Car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2), 186-198.

한 정 원(Jeong-Won Han)

[종신회원]



- 1991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 학과(문학사)
- 1996년 1월 : Univ. of Sussex, MA (Welfare Policy)
- · 2003년 7월 : Univ. of Sussex, PhD (Welfare Policy)
- · 2009년 ~ 현재 : 부산기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정책, 돌봄노동, 치매서비스, 복지기술 · E-Mail : jhan@cup.ac.kr